

## 1. 미국

### 가. 고등교육 및 고등교육재정 관련 동향

미국은 최근 고등교육 진학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많은 학생들에게 고등교육 접근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지원의 확대와 고품질의 학위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음.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교육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대학 지도자, 정부 인사 등이 협력하여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표 1〉 미국 고등교육 관련 동향

구분	내용
고등교육 기회 확대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정부는 초중등교육에 있어 다소 제한적인 역할을 하지만, 연방의 중요한 교육정책 리더십을 제공하며 예산을 지원함. 주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초중등분야에 대한 주된 책임을 갖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및 유지하기 위해 공교육을 지원함</li> </ul>
	<p>[Raise the BAR(Bold + Action + Results) in College Excellence and Equ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2년 8월, 교육부는 40개 이상 대학 지도자들, 정부 인사들과 함께 고등교육의 미래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데이터 수집, 노동력 자격 향상, 대학 학비 평가, 대학 졸업률 등의 현 미국 고등교육의 관심 주제를 다룸</li> <li>Cardona 교육부 장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미국 고등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고등교육 환경을 보다 포괄적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관리가 협력하고, 대학 순위보다 학생들을 위한 고품질의 평등한 학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집중해줄 것을 요청함</li> <li>즉, 교육부는 최근 개혁의 청사진 보다 코로나로 영향을 받은 교육체계를 정비하고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li> </ul>
이공계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지원을 총괄하는 NSF는 STEM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고품질, 다양한 인력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2022년 예산을 분석해 보면 수학과 물리학 분야에 대한 연구지원이 가장 높고 컴퓨터와 정보과학, 공학에 대한 연구지원이 높음.</li> </ul>
기타	<p>[테크놀로지 역할의 강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교육부 산하 교육기술국(Office of Education Technology) 테크놀로지 역할 재정립(Reimagining the Role of Technology in Higher Education, 2017): 테크놀로지 도입</li> </ul>

자료: U.S. Department of Education(2022), Office of Educational Technology(2022)

바이든 행정부는 공약 이행과 코로나19 등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증가한 학자금 상환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자금 대출 관련 부채 탕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이는 학자금 대출 상환이 어려워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젊은 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향후 10년간 연간 약 3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며 학자금 부채 문제 해결로 경제활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가 포함되어 있음.

다만 학자금 대출 탕감으로 막대한 자금이 풀리게 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으며, 대학 미진학자의 납세로 중산층과 특정 인종 등을 지원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형평성의 문제도 안고 있음.

1) 본 원고의 내용은 교육부 해외 주재관을 통해 조사한 자료를 정리한 것임.

〈표 2〉 고등교육재정 관련 동향

구분	내용
학자금 대출 부채 탕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장기화로 인해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젊은 세대를 돕기 위해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및 유예 계획을 발표한. 8월 학자금 상환 계획(Student Debt Relief)을 통해, 최대 2만 달러까지의 학자금을 탕감하겠다고 언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연간 소득이 \$123,000(개인) 또는 \$250,000(부부 또는 가장) 미만인, 연방정부 대학 학자금 대출자</li> <li>- 학자금 대출자 4천3백만 명 혜택, 그 중 약 2천만 명은 전액 탕감 전망(대학생이 대출한 학자금뿐만 아니라 학자금 지원을 위한 부모 대출(Parent Plus)자 약 360만 명도 탕감 대상)</li> <li>- 2020.3월 이후 학자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한 학자금 환불 조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인당 최소 \$10,000, Pell Grant* 수혜자는 \$20,000까지 가능</li> <li>* 미 연방 교육부가 저소득층(연소득 약 \$60,000 미만) 학부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현재 약 600만 명이 수혜를 받고 있음. 최대 6년간 지원하며 상환할 필요가 없는 특징(2022-2023학년도 기준, 1인당 최대 지원금 \$6,895)</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3월부터 추진해 오던 학자금 상환 유예 조치도 4개월 추가 연장하여 2022년 12월까지로 최종 유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량소득 기준 10%를 상환 한도로 책정하던 것을 5%로 하향조정하여 가계별 상환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 연방 교육부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연간 약 300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됨. 계획 발표 이후 여론 조사 실시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가 학자금 대출 부채를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며 젊은이들이 주택구입과 출산을 방해하는 요소로 인지하고 있었음.</li> <li>• 한편 이는 사회로 첫 발을 디디는 젊은 층을 학자금 부채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는 긍정적 기대와, 약 3천억 달러(약 402조)의 막대한 자금이 풀리게 되어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하는 부정적 측면으로 양분됨. 또한 미국 전체 대학 진학률(2020년 국립교육통계센터(NCES) 기준 고교졸업 후 곧바로 대학에 입학한 비율 63%)을 고려할 때,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납세자들의 희생으로 중산층 특정 집단 및 인종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고, 11월 중간선거에 앞서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으로 동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젊은 층과 진보성향 유권자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됨.</li> </ul>
고등교육재정 투자 감소에 따른 고등교육 기회 제한 문제 인식	<p>[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 2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등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주정부의 재정 투자 감소에 따른 학생의 고등교육 기회 제한을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고 있음. 즉, 주정부 등의 투자 감소로 인한 등록금 인상 등으로 학생들은 대학 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곧 노동 기술의 강화와 미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함</li> </ul>

자료: Brookings Institution(2022).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2022), Inside Higher Ed(2022), U.S. Department of Education(2022)

## 나. 고등교육 이수 현황

2020년 가을학기 기준 4년제 기관에 등록한 약 1,090만 명의 학생이 전체 학부 등록자의 69%를, 2년제 기관에 등록한 약 490만 명 학생이 나머지 3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에서 2020년 사이에 4년제 기관 등록이 10% 증가한 반면(990만 명에서 1090만 명으로), 2년제 기관 등록은 35% 감소함(750만 명에서 490만 명). 특히 2019년 가을학기 대비 2020년 가을학기에는 12% 낮아져 단일연도 중 가장 큰 감소를 기록함. 이에 미국 정부는 고등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한 대안 마련에 힘을 쏟고 있음.

〈표 3〉 학제별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규모(단위:명)

연도	2년제	4년제	합계
2009	7,522,581	9,941,598	17,464,179
2010	7,683,597	10,398,830	18,082,427
2011	7,511,150	10,566,153	18,077,303
2012	7,167,840	10,567,798	17,735,638
2013	6,970,644	10,505,660	17,476,304
2014	6,714,678	10,579,458	17,294,136
2015	6,499,461	10,547,212	17,046,673
2016	6,092,418	10,782,231	16,874,649
2017	5,952,771	10,820,265	16,773,036
2018	5,752,962	10,863,408	16,616,370
2019	5,590,711	10,966,828	16,557,539
2020	4,913,783	10,938,123	15,851,906

자료: Brookings Institution(2022),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2022), Inside Higher Ed(2022), U.S. Department of Education(2022)

대학 설립 유형에 따라 연도별 고등교육기관 진학자를 구분해보면, 2020년 가을학기 기준 공립대학 학생이 약 1,232만 명, 비영리 사립대학 약 274만 명, 영리사립대학 약 79만 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즉, 전체 대학생의 약 77.7%가 공립대학에, 약 17.3%가 비영리 사립대학에, 5.0%가 영리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음(〈표 4〉 참고).

〈표 4〉 설립유형별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규모(단위:명)

연도	공립대학 (Public)	비영리 사립대학 (Private nonprofit)	영리사립대학 (Private for-profit)
2011	13,694,899 (1,755)	2,718,923 (1,741)	1,663,481 (1,782)
2012	13,478,100 (1,725)	2,744,400 (1,742)	1,513,138 (1,812)
2013	13,348,292 (1,720)	2,755,463 (1,759)	1,372,549 (1,780)
2014	13,244,533 (1,721)	2,772,065 (1,754)	1,277,538 (1,680)
2015	13,150,823 (1,717)	2,822,122 (1,773)	1,073,728 (1,580)
2016	13,143,979 (1,718)	2,813,742 (1,746)	916,928 (1,344)
2017	13,112,594 (1,720)	2,819,080(1,751)	841,362 (1,270)
2018	13,059,760 (1,724)	2,819,406 (1,721)	737,204 (970)
2019	13,004,143 (1,710)	2,794,796 (1,716)	758,600 (891)
2020	12,321,146 (1,666)	2,742,949 (1,696)	787,811 (8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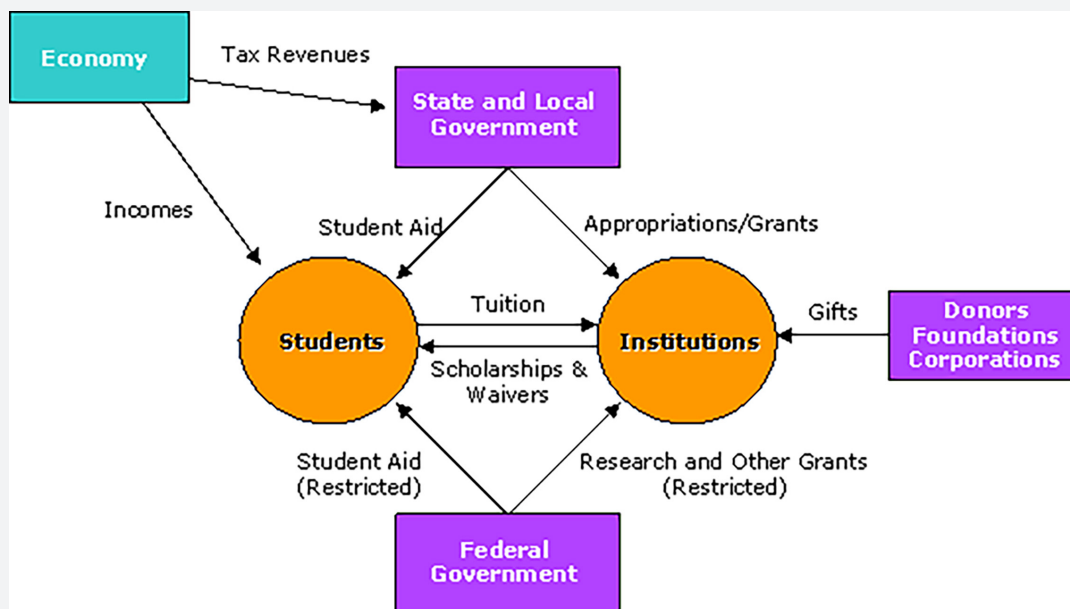
주: ( )의 기관수는 연방 정부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의 숫자로 표기(Post Secondary institutions in the United States that award federal student aid by sector of institution)

자료: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2022)

### 다. 고등교육재정 지원 구조

미국 대학은 연방정부의 지원과 주정부 지원 및 기부금, 등록금으로 자금을 마련하며, 연방정부 지원금은 주별 인구수 등에 따라 배분하고 있음. 전통적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지원 비율을 살펴보면, 연방정부 대비 주정부 지원 비중이 높았으나, 최근 들어 그 비중이 비슷해지고 있음.

재원의 확보 측면에서 연방정부의 재원은 소득세, 사회보험기여금, 소비세, 기타 재원을 통해,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원은 재산세, 일반판매세, 소득세, 기타 등을 기반으로 확보됨. 또한 연방정부는 주로 개별 학생 교육이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주정부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을 대상으로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그림 1] 고등교육 재정지원 구조

자료: National Center for Higher Education Management Systems(2022)

### 라. 연방정부의 주요 고등교육재정 지원 사업

1965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따라 미국 연방 교육부 고등교육국(Office of Postsecondary Education: OPE)은 학생 재정 지원 프로그램 관련 정책과 연방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에 대한 공식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연방 교육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하는 학생들에게 저금리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자금 재정 보조 프로그램(Federal Student Aid Program) 유형과 지원 규모를 확인하면 <표 5>와 같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Pell Grants, FSEOG, Federal Direct Loan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Pell Grants는 저소득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연방정부 무상 보조 프로그램으로 신청자의 재정형편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음. \$100에서 최고 \$6,895로, 2021년 약 646만 명의 학생들에게 지원된 바 있음.

또한 FSEOG(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s)는 Pell Grants 대상 학생 중 특별히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2021년 기준 약 169만 명의 학생이 수혜받음. Federal Direct Loan은 연방교육부 학자금 융자 프로그램으로 대학 재학 중인 경우와 졸업 후 6개월 동안 정부에서 이자를 대신 지불하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 기준 약 1,378만 명의 학생들에게 지원됨. 그 외 Federal Work Study는 재정보조가 필요한 학부·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캠퍼스 내 일을 하며 학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방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특징이 있음

〈표 5〉 연방정부(교육부) 학자금 지원 사업

(단위: 천 달러)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Federal Pell Grants	29,784,352	29,233,392	29,618,352	29,618,352
Federal Supplemental Educational Opportunity Grants	840,000	840,000	865,000	880,000
Federal Work-Study	1,130,000	1,130,000	1,180,000	1,190,000
Federal Direct Student Loan Program	13,619,843	4,842,627	11,829,410	11,829,410
Federal Family Education Loans	2,545,960	3,661,416	13,259,764	13,259,764
Aid for Institutional Development	670,979	687,501	762,125	785,702
Federal TRIO Programs	1,010,000	1,060,000	1,090,000	1,097,000
Scholarships and Fellowships	23,047	23,047	23,047	23,547
Howard University	232,518	236,518	240,018	251,018
General Fund Receipts	-27,603,230	-12,436,376	-13,905,940	-13,905,940
Other	837,875	627,194	705,481	742,273
Total	23,091,344	29,905,319	45,667,257	45,771,126

자료: U.S. Department of Education(2022).

이 외에도 2021년 3월 11일자 미국 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기간 중 학생들의 학습 지속 보장을 위해 긴급 재정지원이 이루어졌음.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표 6〉과 같음.

〈표 6〉 코로나19로 인한 고등교육 긴급지원금 지원 내역

구분	내용
Higher Education Emergency Relief Fund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40억 달러의 긴급지원금의 90%는 고등교육기관에 직접 지원되었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Pell Grants 수혜자 숫자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 배분됨. 나머지 10%의 지원금은 소수민족지원 학교와 고등교육 개선 프로그램 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됨</li> </ul>
CRRSAA: Higher Education Emergency Relief Fund (HEERF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 2차 고등교육 긴급 지원금은 총 212억 달러로, 고등교육기관에 배분되었으며 역사적 흑인대학, 소수민족 기관 및 고등교육 개선 프로그램 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됨</li> </ul>
American Rescue Plan (HEERF I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 3차 고등교육 긴급 지원금은 총 396억 달러로, 코로나19 기간 동안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고등교육기관에 직접 배분되어 학생들의 재정 보조 및 다양한 고등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됨</li> </ul>

주: U.S. Department of Education(2022)

## 2. 독일

### 가. 고등교육 동향

독일의 고등교육 동향은 크게 대학 진학률의 증가와 실습 및 실용화 중심의 대학 진학 증가,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직업교육 시스템 개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석사과정으로 운영되던 기존의 고등교육과정 체제에서 2005년 학사과정을 도입하여 대학 진학률이 크게 증가함. 또한 이론 중심 종합대학교 대비 실습과 실용화 중점을 두는 응용과학대학의 진학률이 눈에 띈. 또한 기업체 실습과 대학 공부를 연계하는 직업교육 시스템(듀얼시스템)의 적용으로, 관련 학과 재학생 수도 최근 15년 간 약 4배 정도 증가함.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의 증가와 함께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 예컨대 독일 바이에른 주정부는 2022년 7월 대학개혁법을 통과시켰음. 법안에는 대학의 자율결정권 부여, 교수의 행정적 부담 완화, 신속한 교수 초빙이 가능한 환경 조성, 대학 구성원 및 기업체 간 협업 지원을 위한 내용이 포함됨.

#### 〈표 7〉 독일의 고등교육 동향

구분	내용
대학 진학률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럽연합 국가의 볼로냐 협정에 따라 3년제 학사과정 도입 후 대학 진학률 증가</li> <li>2005년까지는 학사과정 없이 석사과정만으로 졸업까지 7~8년 소요, 학업 기간이 길어 대학진학률 낮았으나, 2005/2006년 학사과정 도입 후 고등학교 졸업생 중 3년제 직업교육과 3년제 학사과정 중에서 대학 진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짐</li> <li>대학 지원자 수가 대학의 수용능력보다 많아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입학정원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음. 2020/21년도 전체 전공 중 34.2%가 고등학교 졸업성적에 따라 입학함</li> </ul>
실습과 실용화 중심의 대학 진학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론에 중점을 두는 종합대학교(Universty)보다 실습과 실용화에 중점을 두는 응용과학대학(Fachhochschule)의 입학생이 현저히 증가함. 응용과학대학(Fachhochschule)은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전공을 신설하며 시대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음</li> </ul>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독일 바이에른 주정부는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년 7월 대학개혁법을 통과시킴</li> <li>법안에는 1) 대학에 폭넓은 자율결정권을 부여하여 대학이 받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신축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그 외에도 2) 대학 교수들의 행정적인 부담을 없애고, 3) 교수 초빙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4) 교수와 대학 소속 연구원의 기업체와의 협업이 용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됨</li> </ul>
직업교육 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에 독일 직업교육의 특징인 듀얼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체 실습과 대학 공부를 연계하는 듀얼 시스템 학과 재학생 수가 2004년부터 2019년 사이 약 4배 정도 증가함</li> <li>교육부장관 협의체(Kultusministerkonferenz)는 대학의 듀얼 시스템 발전에 필요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 법령을 준비 중임</li> </ul>

원 세 립 |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교수

### 나. 고등교육 이수 현황

독일의 대학 진학률은 2005년 학사제도 도입을 기준으로 큰 차이가 나타남. 석사과정만 있었던 2005년까지 약 35%에 불과하던 진학률은 2007년부터 상승하여 2010년 약 46%, 2011년 55.6%로 급격히 상승한 후 2021년 기준 55.8%로 55%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2021/22학년도 기준 독일의 고등교육기관은 총 422개이며, 이 중 사립대학은 115개로 전체의 약 27%를 차지하고 있음. 한편 전체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수는 대략 총 295만 명 규모이나, 사립대학 재학생 수는 306,637명으로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함.

〈표 8〉 2021/22학년도 대학 수 및 기관별 학생 수

구분	대학 수(사립대학 수)	학생 수(사립대학 학생 수)
종합대학(Universty)	108(21)	1,725,461
응용과학대학(Fachhochschule)	210(87)	1,094,477
행정 대학	30(1)	60,332
예술 대학	52(3)	37,084
교육 대학	6	26,292
신학 대학	16(3)	2,495
합계	422(115)	2,946,141(306,637)

### 다. 고등교육재정 규모 및 재정지원사업

주정부 및 연방정부가 지원한 전체 교육비용은 지난 10년 간 약 50% 증가함. 2019년 기준 독일의 총 교육비용은 약 2,290억 유로로, 각 재원별로 살펴보면 연방정부 10%, 주정부 52.8%, 지자체 17.6%, 기업체 및 개인이 약 19.2%를 차지함.

2019년 기준 국가 부담 교육비용의 영역별 금액을 확인하면, 취학 전 아동교육 344억 유로(15%), 초중등교육 1,058억 유로(46.2%), 대학 교육 452억 유로(18.6%), 평생교육 366억 유로(10%) 등 임. 2021년의 경우 대학교육에 총 344억 유로의 예산을 계획하였으며, 이중 294억 유로는 주정부가, 50억 유로는 연방정부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됨.

한편 독일 대학은 전체 재원의 90%를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있음.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75%는 주정부가 지원하며, 15%는 연방정부가 연구프로젝트나 특별 프로그램(예: 엘리트 대학 프로젝트)등을 통해 지원하는 형태임. 한편 전체 재원의 10%는 기업체의 연구 프로젝트 또는 개인적 후원을 통해 지원됨.



원 세 립 |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연구교수

〈표 9〉 대학 재정지원사업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대학협약 프로그램 (Hochschulpa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7년부터 2023년까지 대학 진학을 급증에 따른 수업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연방정부 202억 유로를 지원, 주정부 183억 유로를 지원하는 계획</li> </ul>
미래의 학문과 교육 강화 협약 프로그램 (Zukunftsvertrag Studium und Lehre stärke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협약의 후속 지원 프로그램으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개선된 수업 환경의 지속적 유지 및 보다 우수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프로그램</li> <li>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각각 매년 18억 8천만 유로, 2024년부터는 각각 매년 20억 5천만 유로 지원</li> </ul>
1, 2차 엘리트 대학 선정 프로젝트 (Exzellenzinitia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방정부와 주정부 공동으로 연구 방면에서 뛰어난 소수의 대학을 선정하여 막대한 재정을 투자하는 프로젝트</li> <li>1차 엘리트 대학 선정 프로젝트는 2011년까지, 2차는 2017년까지이며, 선정된 10개 내외 엘리트 대학들을 각각 5년 동안 지원</li> <li>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이 정책으로 선정된 10여 개의 엘리트 대학은 뛰어난 연구 실적으로 독일 대학의 전반적인 연구 경쟁력을 향상시켰다고 평가됨</li> <li>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후속 정책으로 '엘리트 대학 전략(Exzellenzstrategie)'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2018년부터 매년 5억 3,300만 유로 지원, 연방정부와 선정된 11개 엘리트 대학의 소재 주정부의 재정 부담 비율은 75:25임</li> </ul>

독일에서 학사를 마치기까지 학생 당 국가 부담 규모는 2020년 기준 약 41,400 유로임. 독일 정부는 대학생 한 명당 연간 평균 11,000 유로를 지출하고 있으며, 계열별로 구분하면 인문학 전공 5,530 유로, 법학 3,900 유로, 자연과학 11,370 유로, 의학 19,930 유로, 공학 6,310 유로 수준임.

또한 대학의 학생 수 증가에 따라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역할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2017년 독일대학 총장협의체(Hochschulrektorenkonferenz)는 학생 수 급증에 따른 대학 수업 환경의 개선과 연구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기본 운영비의 3% 증액을 요구한 바 있음. 주정부와 연방정부의 협약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을 2014년에 개정함에 따라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한편 독일의 공립대학은 주정부의 교육부에 소속되어 재정지원 및 관리 감독을 받기 때문에 모두 주립대학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학 등록금은 없음. 구체적인 대학 사례를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확인하면 다음과 같음.

- (사례 1) 함부르크 대학: 학생 수 44,185명으로 독일에서 큰 규모의 대학에 속함. 함부르크 주정부가 2020년에 5억 6,400만 유로 지원, 대학 외 기관들로부터 받은 연구 기금은 2억 7,300만 유로임
- (사례 2) 다름슈타트 공대: 학생 수 24,985명으로 소규모 대학에 속함. 2021년 주정부인 헤센주로부터 2억6,350만 유로를, 연방정부로부터 '대학협약' 프로그램에 따라 2억 1,400만 유로를, 대학 외 기관에서 연구기금 1억 8,830만 유로를 지원 받음

독일 대학들은 대학의 연구 질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로 주정부로부터 받는 기본 운영비 외에 대학 외 기관에서 받는 연구 기금 액수를 들고 있음. 각 대학은 매년 대학 외 기관으로부터 받은 기금 액수를 학교 프로필에 제시함.

또한 독일의 사립 대학교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없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만 운영되므로 등록금이 매우 비싸며 학생 수가 적다는 특징이 있음. 예컨대, 독일의 대표적인 사립대학교인 야콥스 대학(Jakobs Universty)의 연간 등록금이 2019년도에 26,650유로였으며, 총 학생 수는 1,600명에 불과한 수준임.



[참고문헌]

- | Brookings Institution(2022). <https://www.brookings.edu/blog/fixgov/2022/09/06/do-americans-support-president-bidens-student-loan-plan/>
- | Brookings Institution(2022). <https://www.brookings.edu/blog/fixgov/2022/09/06/do-americans-support-president-bidens-student-loan-plan/>
- |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2022). [https://www.bmbf.de/bmbf/de/bildung/studium/hochschulpakt-2020/hochschulpakt-2020\\_node.html](https://www.bmbf.de/bmbf/de/bildung/studium/hochschulpakt-2020/hochschulpakt-2020_node.html)
- |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2022). <https://www.bmbf.de/bmbf/de/bildung/studium/zukunftsvertrag-studium-und-lehre-staerken/zukunftsvertrag-studium-und-lehre-staerken.html>
- |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orschung(2022). <https://www.bpb.de/kurz-knapp/zahlen-und-fakten/soziale-situation-in-deutschland/61681/bildungsausgaben/#:~:text=Im%20Jahr%202019%20lag%20das,betriebliche%20Ausbildung%20im%20dualen%20System>
- | center on budget and policy priorities(2022). <https://www.cbpp.org/research/state-budget-and-tax/a-lost-decade-in-higher-education-funding>
- | Deutscher Bundestag(2022). <https://www.bundestag.de/resource/blob/702380/4582a586f8639efa3edf4a949b112c1f/WD-8-020-20-pdf-data.pdf>
- | Deutscher Bundestag(2022). [https://www.bundestag.de/webarchiv/textarchiv/2014/kw46\\_de\\_grundgesetz-339876](https://www.bundestag.de/webarchiv/textarchiv/2014/kw46_de_grundgesetz-339876)
- | Deutsches Institut für Erwachsenenbildung(2022). [https://www.die-bonn.de/zeitschrift/22007/stichwort\\_erst\\_zweit\\_drittmittel.html](https://www.die-bonn.de/zeitschrift/22007/stichwort_erst_zweit_drittmittel.html)
- | Education Data Initiative(2022). <https://educationdata.org/college-enrollment-statistics>
- | German Science and Humanities Council (Wissenschaftsrat)(2022). [https://www.wissenschaftsrat.de/download/archiv/7067-06.pdf?\\_\\_blob=publicationFile&v=1](https://www.wissenschaftsrat.de/download/archiv/7067-06.pdf?__blob=publicationFile&v=1)

## [참고문헌]

- Hochschulrektorenkonferenz(2022). <https://www.hrk.de/positionen/beschluss/detail/finanzierung-des-hochschulsystems-nach-2020>
- Hochschulrektorenkonferenz(2022). <https://www.hrk.de/themen/hochschulsystem/hochschulfinanzierung/>
- Inside Higher Ed(2022). <https://www.insidehighered.com/quicktakes/2022/10/03/ed-department-debt-relief-cost-300-billion>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2022). <http://nces.ed.gov/programs/coe/indicator/cha#5>
-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2022). <http://nces.ed.gov/programs/coe/indicator/cha#4>
- National Center for Higher Education Management Systems(2022) <http://www.higheredinfo.org/catcontent/cat8.php>
- Office of Educational Technology(2022). <https://tech.ed.gov/files/2017/01/Higher-Ed-NETP.pdf>
- Panorama(2022). <https://www.spiegel.de/lebenundlernen/uni/statistik-so-viel-kosten-studenten-ihre-unis-pro-jahr-a-1078683.html>
- Statista(2022).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72333/umfrage/laufende-ausgaben-fuer-ein-studium-in-deutschland-nach-abschlussart-und-hochschulart/#:~:text=Im%20Rechnungsjahr%202020%20wurden%20an,Höhe%20von%2041.500%20Euro%20ermittelt>
- Statista(2022).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97943/umfrage/drittmittel-je-professor-an-deutschen-hochschulen-nach-faechergruppen/deutschen-hochschulen-nach-faechergruppen>
- Statista(2022).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72005/umfrage/entwicklung-der-studienanfaengerquote/>
- Statista(2022).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247238/umfrage/hochschulen-in-deutschland-nach-hochschulart/>
- Statista(2022).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221/umfrage/anzahl-der-studenten-an-deutschen-hochschulen/>

## [참고문헌]

- | Statista(2022).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264/umfrage/anzahl-der-studenten-nach-hochschulart/#:~:text=Die%20Statistik%20zeigt%20die%20Anzahl,2%2C95%20Millionen%20Studierende%20immatrikuliert>
- | Statista(2022).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ildung-Forschung-Kultur/Hochschulen/Tabellen/privatehochschulen-hochschularten.html>
- | Statista(2022).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089894/umfrage/anzahl-der-studierenden-an-privathochschulen-in-deutschland/#:~:text=Die%20Anzahl%20der%20Studierenden%20an,Privathochschüler%3Ainnen%20auf%20einem%20Höchststand>
- | Statista(2022).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2526/umfrage/entwicklung-der-oeffentlichen-bildungsausgaben/>
- | Statista(2022).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161321/umfrage/anteil-der-oeffentlichen-bildungsausgaben-am-bip/>
- | Statista(2022). <https://de.statista.com/statistik/daten/studie/36284/umfrage/oeffentliche-ausgaben-fuer-hochschulen-nach-koerperschaftsgruppen/>
- | Statista(2022).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ildung-Forschung-Kultur/Bildungsfinanzen-Ausbildungsfoerderung/Glossar/drittmittel.html>
- | Süddeutsche Zeitung(2022). <https://www.sueddeutsche.de/bayern/bayerischer-landtag-hochschulreform-beschluss-1.5625131>
- | Technische Universität Darmstadt(2022). <https://www.tu-darmstadt.de/universitaet/index.de.jsp>
- | Universität Hamburg(2022). <https://www.uni-hamburg.de/uhh/profil/fakten.html>
-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22). <https://www.ed.gov/news/speeches/statement-miguel-cardona-secretary-education-us-department-education-fiscal-year-2023-budget-request>
-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22). <https://www.ed.gov/news/speeches/raise-bar-bold-action-results-college-excellence-and-equity>

**[참고문헌]**

-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22).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us-department-education-estimate-biden-harris-student-debt-relief-cost-average-30-billion-annually-over-next-decade>
-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22).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us-department-education-estimate-biden-harris-student-debt-relief-cost-average-30-billion-annually-over-next-decade>
-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22). <https://www2.ed.gov/about/overview/budget/history/index.html>(Education Department Budget History Table)
-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22).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ep/caresact.html>
-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22). <https://www2.ed.gov/programs/heerf/index.html>
-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22).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ep/crrsaa.html>
- | U.S. Department of Education(2022). <https://www2.ed.gov/about/offices/list/oep/arp.html>